

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

건축사의 소명과 위치

Architect's Royal Summons and Posture

李好璣/건국대교수

by Lee, Ho-Chin

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마음은 두 갈래인 것 같다. 하나는 물질적인 무한한 발전을 기하여 풍요로움을 원하는 것과,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것 보다 우리를 돌아보며 모든 분야에서 正道를 걸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자는 생각이다. 뜻있는 사람들은 후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줄 안다.

모든 분야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려면 각 분야에서 전문인의 올바른 계획과 판단과 이행이 있어야 할 줄 안다. 이러한 원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하면 최근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<건축사법 23조>에 대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.

건축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진흙속에 파묻혀서 자기를 빛고 있는 도공들이 아름다운 한국의 청자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.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인들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끝에 탄생시킨 자기 작품을 보며 흐뭇해 하는 생각은 이것이 나의 천직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.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축설계 전문인이라고도 칭할 수 없다.

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 창조의 아픔을 참아낼 수 있다고 본다. 이 가운데에서도 건축설계를 하는 이들의 긍지는 그 건축속에서 인간에게 인간영유의 권리를 주며, 인간본능을 충족시키며, 인간개발의 희망을 주며, 그 시대 사회를 대변하는 조형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자긍심인 것이다. 여기에는 경제적인 큰 자본이 이를 방해해서도 안되고 이에 전문인이 아닌 사주(社主)의 영리위주의 원칙에 타협을 할 수도 없다. 만일 이러한 것이 이뤄진다면 건축설계자의 긍지를 다 이뤄나갈 수 없으며, 자동적으로 그 건축은 상업위주의 건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. 이러한 건축사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사의 윤리와 소명의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.

한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소명, 즉 설계자 하나 하나의 작품이 서울의 얼굴이요, 부산의 얼굴이지 않은가? 기업적이고 상업적인 이윤 추구자에 의해 이러한 작업이 이뤄진다면 이는 많은 제약속에서 제한된 작품으로 달성될 수 밖에 없다.

또한 설계자는 한국인의 건강과 사회상과 환경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. 열악하고 불건강할 수 밖에 없는 고도의 건축밀도, 인구밀도에서 건축적으로 탈출하여 건강한 사회와 환경을 창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. 이는 생활수단으로의 건축직업 이전에 건축인의 소명의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. 이는 나만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.

그리고 건축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속의 한국문화의 얼굴을 후세에 이어주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. 그러므로 건축설계는 미래 지향적이며 옛 전통을 전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.

이러한 건축사(건축설계)의 긍지와 윤리정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며,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. 이러한 참다운 건축사들이 많이 나오으로써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고 UR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.

건축은 시각 예술이며, 조형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. 물론 사용하기 좋은 기능성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최종적인 건축의 표현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한다. 그렇다면 건축설계라는 것은 예술의 장르에서 그 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. 예술가가 어떤 자본주 밑에서 간섭을 받고, 그 조직속에서의 일원으로 창작을 하여야 하고, 그 예술작품이 잘 팔려서 이윤추구를 얼마나 할까 하는 측면의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 않은가?

앞으로 한국 건축계의 체계는 정말로 제자리 찾기 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.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형 예술가의 위치에서 수준높은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사(가)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고, 이 설계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적이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세에서 이룩하는 시공자들의 위치가 확연히 구분되어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. 두개의 분야는 서로 대립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조화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.

先史이래 인간사회는 끊임없는 분화의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. 현재는 과거보다 더 전문화된 사회일테고, 미래는 지금보다 더더욱 그러한 사회일 것이다. 부연하자면, 미래사회는 전문집단이 유기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사회일 것이다.

이런 상식에 비춰볼 때 시공 전문회사인 건설업체가 “설계”라는 또다른 전문영역을 넘보는 행위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. 사회의 발전은 이것을 이루는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 충실할 때 실현되듯이 건축계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. 건축사는 “설계”, 건설 업체는 “시공”이라는 본연의 영역에 충실할 때 조화로운 발전이 있는 것이며, 건축문화창달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.

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건축계가 추구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혼란된 논리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때라고 생각된다.